

지역 소식 통

고창군, "관내 전기차 충전소 모두 지상 운영중"

고창군은 현재 운영중인 관내 전기차충전기 296기(급속 98기, 완속 198기) 중 지하주차장에서 운영중인 곳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 방지 차원에서 기존 운영 중이던 고창읍 공동주택 2곳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각 2기씩 총4기) 사용을 임시중단했다. 현재 해당 공동주택은 지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발생시 인내서와 대응요령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필구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두도록 적극 유도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지향 농촌융복합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20일 2층사 대강당에서 2024년 제3회 정읍지향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농촌융복합 산업사업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산·학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한 세 가지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예산 변경안을 검토·승인했다. 또한, 정읍지향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향 판매 촉진과 관련된 2024년 3·4분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도 검토했다.

시는 정읍지향 융복합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 재배농가 역량 강화, 약용작물 상품 판매 확대, 온라인 마케팅 강화, 정읍지향 홍보를 위한 축제 운영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2025년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 업데이트 및 사무국의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본형공익직불금 부당수령 주의 당부

부안군, 부당수령액 500만원이면 5배인 2500만원 제재부가금 부과

부안군은 최근 기본형공익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경작자가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에서 고령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느껴 기존대로 직불금을 받아서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주는 일이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5배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당수령금이 500만원이면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2500만원이 돼 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추가로 면적직불금으로 수령했을 시에는 5년 동안 해당 지번에 대해서 등록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농지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등록제한으로 농가에는 최대 10배인 5000만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 직불금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본형공익직불금 부정수령으로 적발이 된다면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경작하지 않고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활 속 감염예방수칙 준수해 주세요"

부안군보건소,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난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되었고, 올해 5월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으로 하향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7월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안군보건소는 생활 속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에어컨 가동이 늘고 실내 환기는 부족하고 마스크는 미착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안군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마스크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안군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에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증상·사망 위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상황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치명률은 0.1% 미만으로 계절독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주민들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웃도 보호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 공인 인증 준비 박차

정읍시가 신태인을 동진강변에 위치한 신태인파크골프장의 공인구장 인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파크골프 동호인과 이용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신태인파크골프장을 방문해

공인구장 인증을 위한 현장 심의를 진행했다. 현장 심의에서는 시설 및 설치물의 기준에 따라 약 40개 항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공인구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반 파크골프장과 달리 표준화된 코스 설계와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400여 개의 파크골프장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구장은 불과 30여 개에 불과하다.

시는 9월 중으로 공인구장 인증을 목표로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이 공인 인증을 획득하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파크골프 지도사 자격증 시험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가 가능해진다. 또한 파크골프장 정규홀(36홀)로는 전북 최초의 공인구장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신태인을 동진강변에 위치한 신태인파크골프장의 공인구장 인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업과 사람의 교감 미래 공존'

21~23일 부안서 제8회 한국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

한국 쌀 전업농이 대한민국 쌀 산업의 현재와 미래 쌀의 가치, 비전, 공존을 제시하는 제8회 한국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를 21일부터 23일까지 부안군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한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대회는 농업 농촌의 발전을 주도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보교환 벤치마킹으로 농업과 사람의 교감 미래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쌀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쌀 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공유를 통해 보이는 식량 '밥'으로써 쌀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식량 '산소'로써 쌀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농업 기자재 전시 홍보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며 쌀 산업의 선진화된 기술을 전국

회원들과 방문자들에게 홍보 전파하며, 농업 농촌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는 쌀 산업 결속과 단합을 통해 이익 공유의 장으로 운영한다.

둘째 날은 환영식, 개회식과 국내 쌀 산업의 중요성과 위기에 대한 정보공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의 시간으로 운영한다.

마지막 날은 농촌산업 육성 관련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지역의 리더 정책 시례를 공유하는 정보교환 벤치마킹으로 대한민국의 쌀 산업의 현재와 미래 쌀의 가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한다.

부안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쌀 전업농의 미래 비전과 조직 역량을 강화해 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쌀 산업을 육성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생활물가 자료 공개

군민 생활 안전 지원 강화

고창군이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 지역 내 주요 생활물가 자료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공개는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창군은 이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생활물가 자료는 △고창군 내 주요 대형마트(고창읍, 군경계지역 마트) △전통시장 △관광지 △개인서비스(외식) △지방 공공요금 현황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 정보

를 포함한다.

자료는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물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인 소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접수

정읍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정읍시에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원씩, 총 50만원의 기숙사비·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전입해 6개월 이

상 거주 중인 정읍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다만, 휴학생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에게는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단,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